

소비자



주5일 수업 야외활동 증가... 나들이 캠핑용품 인기



카드 재테크

자동차를 갖고 있다면 돈 들어 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기름값이다. 요즘처럼 기름값이 비싼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최근 유류 재정 위기, 미국과 중국의 경기지표 둔화 등으로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덕분에 우리나라 기름값도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래도 휘발유는 당연히 2000원이 넘고, 게다가 한 달 새 하락폭이 10원이 채 안 된다고 하니 '떨어졌다'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상황이 아닌가 싶다. 이제 는 고유가 시대에 적응하면서 사

랜드 주유를 자주 이용하는지, 한 달에 주유량은 얼마나 되는지, 또 주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월 신용판매 실적어 얼마 이상이 어야만 하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주유 혜택 이외의 서비스는 뭐가 있는지도 중요하다. 특정 브랜드 주유소만 이용한다면 카드사별로 각 정유사 제휴 카드가 있는 만큼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주유 카드는 고객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여서 카드사들도 고객에게 선택을 받기 위해 항상 고민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꼼꼼히 챙겨서

아웃도어 열풍과 주5일제 수업 등으로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캠핑용품 매출도 늘고 있다. <캠핑용품 매출 급증=24일 지역 유통업체에 따르면 캠핑용품 매출이 전년 대비 최대 3배 이상 증가했다. 광주지역 이마트(광주·광산·동광주·봉선·상무점)에서 지난 4월1일~22일까지 캠핑용품 매출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텐트 205.8% ▲사각침낭 100% ▲그늘막 32.5% ▲발포매트 15.4% ▲코펠 15.2% 증가했다. 특히 이마트 광주점은 캠핑용품 수요가 급증하면서 매출이 300% 가가

이 늘었다. <유통업체 관련 행사 다양=광주신세계 백화점은 오는 6월1~3일까지 1층 시즌이벤트홀에서 '코오롱 스포츠·아웃도어 특가전'을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아웃도어 대전'을 열어 관련 상품을 최대 40% 할인판매한다. 롯데마트는 오는 30일까지 텐트 등 캠핑 용품을 시중가보다 3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그늘막 텐트(1만4800원), 레저 의자(1만9000원), 미니 테이블(2인용·2만2000원) 등을 판매한다.

캠핑용품은 6월17일까지 인터넷쇼핑몰에서 '홈플러스 착한 캠핑 시즌전'을 개최, 캠핑용품 등을 최대 반값에 판매한다. 영국 라이선스 브랜드 '마운틴 이쿱먼트'의 피싱돔 낚시텐트, '코베아' 스마트 피싱 돔 텐트를 최대 40% 할인한다. '빅703' 5~6인용 텐트와 '코베아' 폴딩테이블 및 릴렉스 의자 2개, 랜턴, 버너로 구성된 패키지 상품을 개별상품 가격보다 27% 저렴하게 내놓는다. <캠핑용품 고르는 법=캠핑용품 구입 예산이 부족하면 텐트, 매트, 랜턴과 같은 필수 제품을 먼저 구매하

고 예산에 맞춰 테이블과 의자, 버너와 코펠, 침낭 등의 순으로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에도 필요한 물건은 비용이 마련되면 차후 구매하는 것이 실례를 줄일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아웃도어 담당 관계자는 "캠핑용품을 선택할 때는 장소와 용도에 걸 맞는 제품, 자신의 라이프스타일과 맞는 제품의 선택이 중요하다"며 "추가비용 지출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자기 가족에 적합한 장비를 선택해야 하며, 제품 구입시 예산에 맞춰 필수 제품부터 단계별로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신세계·롯데백, 아웃도어 40%까지 할인 지역 대형마트, 캠핑용품 최대 반값 판매 장소·용도 맞게 필수 제품부터 구입해야

고유가 시대, 주유카드는 필수

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기름값을 아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급출발이나 급제동을 자제하고, 정속 주행을 하는 등 '에코 드라이빙'을 실천하고, 트렁크를 비워서 차량 무게를 가볍게 하고, 심지어 기름 자체의 무게도 있으니 주유 할 때 '가득'을 외치는 것보다 적절한 양을 자주 넣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한다. 또 소비 생활을 하면서 모은 포인트를 주유할 때 사용하는 정유사 연계 통합 포인트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이러한 방법들과 함께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주유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다. 휘발유 기준으로 리터당 약 100원 정도의 이득을 볼 수 있으니 이만큼 쉬우면서도 쓸쓸한 혜택이 없다. 주유 카드를 고를 때엔 특정 브

하는데, 요즘은 단순한 주유 카드를 넘어 플래티늄 서비스를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들도 출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신한 RPM플래티늄카드의 경우 전월 실적에 상관 없이 모든 주유소에서 휘발유 기준 리터당 100원을 적립해 주고, 다른 가맹점에서도 포인트를 많이 적립해 준다. 본인의 소비 성향에 맞는 카드를 찾는 것은 별로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금만 노력해 자신에게 어울리는 카드를 찾는다면 돌아오는 혜택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한중우 신한카드 광주지점장

장터 소식

'쿨 썸머 패션 페스티벌'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쿨 썸머 패션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백화점 8층 이벤트홀에서 31일까지 남성들을 위한 '트렌드 정장 여름 상품 대전'을 진행한다. 지이크, 레노마, 워도, 지오지아, 인터메조 등 유명 남성복 브랜드의 정장을 10만원에 판매한다. 29일까지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는 '대전 3대·영계유일 초여름 상품 대전'을 연다. 모조에스더, 주크, 베스티벨, 오조크 등 여성복 브랜드들이 대거 참여해 초여름 상품을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나이키 스포츠 종합전'

현대백화점 광주점은 27일까지 8층 행사장에서 '나이키 스포츠 종합전'을 연다. 티셔츠(1만7500원), 반바지(2만9500원), 농구화(5만4500원)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또 '울시·김영주 골프웨어 초특가전'을 진행, 티셔츠(3만9000원), 점퍼(7만9000원) 등을 선보인다. 1층 특설행사장에서는 현대단독으로 '인디안 패밀리 그룹전'이 열린다. 남성브랜드 인디안인디안 스포츠, 인디안 옴가 여성브랜드는 올리비아로렌, 앤섬, 디자인잇, 인디오스가 참여한다.

'OB골든라거' 2억병 돌파 황금돌풍

출시 422일만... 성인 1인당 6병 소비

오비맥주(대표 이호립)는 지난해 3월 출시한 'OB골든라거'가 지난 18일 기준으로 출시 422일 만에 2억병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2일 기준, 출시 200일 만에 1억병을 돌파한 후 222일 만에 1억병을 판매한 것으로 맥주시장의 비수기인 겨울철에 판매된 것을 감안하면 놀랄 만한 판매량이다. 이는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인구를 약 8800만명으로 추산했을 때 성인 1인당 'OB 골든라거'를 6병 가량 마신 것으로 분석된다. 'OB 골든라거'는 기존 국내 맥주와는 차별화된 특징으로 출시부터 맥주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11명의 베테랑 브루마스터가 4년간의 연구 개발 과정을 통해 기존 제품보다 깊고 풍부한 맛을 구현했다. 또 기존 국내 맥주에서는 상상하지 못한 최고급 재료가 아낌없이 투입됐다. 맥주 향과 풍미를 좌우하는 홉은 맥주 본고장 독일의 홉 가운데서도 최고급으로 꼽히는 아로마 홉을 사용했으며 국내 유일의 타워 몰팅(Tower malting) 공법을 이용해 만든 골든몰트(황금맥아)를 독일 최고급 홉과 황금비율로 배합해 깊이와 풍미가 다른 풍부함을 선사한다. 장인수 오비맥주 영업총괄 부사장은 "1년 전만 해도 소비자들이 기억

속에 희미하게 존재했던 OB 브랜드가 화려한 부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여름 상수기를 앞두고 대한민국 NO.1 맥주 브랜드와 함께 오비맥주가 맥주시장 정상 자리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환경희생물과학 스팀청소기 '안전 주의보'

환경희생물과학이 생산한 저수식 스팀청소기의 정전, 고장 등 사고가 끊이지 않아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내렸다. 2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이달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과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환경희생물과학의 스팀청소기와 관련한 위해사태는 63건이다. 이중 청소기 본체의 누전 사례는 41건이나 된다. 연도별 위해사태는 2009년 10건, 2010년 15건, 작년 7건, 올해 9건이

다. 대부분 저수식 스팀청소기에서 발생한 것이다. 소비자원은 "히터가 물을 가열해 증기를 배출하는 방식의 저수식 제품이 청소용 패드를 고정하는 헤드에 히터가 있는 물통, 전기장치, 스팀배출구를 내장한 구조여서 수분 유입에 의한 누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제조사인 환경희생물과학에 저수식 스팀청소기 무상점검 등 안전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연합뉴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sset Korea, featuring a table of property listings with columns for location, area, price,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a section for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nd various real estate services.